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경제안보 클러스터 |

| 정성분석팀 12개국 보고서 |

폴란드의 경제안보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Institute for Future Strategy, Seoul National University



폴란드의 경제안보 (2023.3.31.)

1. 들어가는 말

폴란드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폴란드는 러시아를 겨누는 서방의 창끝이 되었다. 폴란드는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에서 앞장 서며 중요한 통로가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3년 2월 폴란드를 방문하는 계기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였다.

폴란드는 구동구 공산권 붕괴를 이끈 혁명을 시작한 나라로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솔리대리티’ Solidarity 지도자 레흐 바웬사 Lech Walesa로 상징되는 폴란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1989년 공산국가에서 최초로 폴란드에 비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였다. 소비에트 블록 해체의 신호탄이었다.

폴란드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0년대에 경기침체를 겪었다. 그러나 폴란드가 1999년 나토에 가입하고 이어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안보를 확보하고 탄탄한 경제발전의 길을 걸었다. 폴란드는 체제전환을 시작한 1989년 한국과 수교하여 평화와 번영의 길을 함께 걸었다.

폴란드는 2015년 ‘법과 정의당’ PiS이 집권한 후 유럽연합으로부터 법의 지배를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폴란드 경제발전의 기반인 유럽연합과의 관계 조정은 커다란 과제가 되었다. 폴란드는 푸틴 Putin 대통령의 러시아가 서방에 안보 위협을 준다고 제기하였지만 서구 국가들은 이를 평가절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상황을 바꾸었다. 폴란드는 미래를 예견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나토와 유럽연합에서의 역할이 부각되었다.

한국은 1989년 폴란드와 수교한 이래 교역과 경제협력을 빠르게 증대시켜 왔다. 양국에는 어려움을 겪은 과거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데에서 비롯된 공감대가 있었다. 한국 기업들은 폴란드에서 기회를 맞았다. 양국 간 협력뿐 아니라 유럽연

합의 단일시장을 활용하는 협력이었다. 이러한 협력은 국제정세가 변곡점에 들어서며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폴란드와의 관계에서 경제안보의 문제를 정성적으로 고찰한다. 폴란드의 강점 및 약점과 더불어 폴란드가 부여하는 기회와 리스크를 조망한다. 폴란드와 한국은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갖고 있다. 양국은 방위 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는 한국이 유럽연합과 협력을 이루어 가는데 중요한 고리가 된다. 경제안보를 함께 고민할 동반자가 된다.

2. 폴란드의 강점

□ 폴란드의 국제사회 입지

폴란드는 복합적 성격을 가진 나라이다. 과거 굴곡의 역사와 장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교차한다.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침략에 희생된 경험이 있지만 많은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EU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이다. 침략을 당하던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유럽연합과 나토에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폴란드의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역할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부각되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서방의 원조가 폴란드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폴란드는 2022년말 현재 150만 명을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의 모델로 예상되기도 한다.

폴란드에서 인류 활동 역사는 기원전 1만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폴란드는 자신들의 역사의 기점을 서기 9-10세기 정도로 본다. 현재의 폴란드 지역에 켈트족, 스키타이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등이 거주한 때로부터 폴란드의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현재의 폴란드 국민과 연계성이 이어지는 서기 9-10세기를 폴란드의 시발점으로 보는 인식이다.

첫 왕조인 피아스트 Piasts 왕조는 서기 10세기에 출현하였다. 폴란드에 국가가



설립된 966년은 폴란드의 초대 국왕인 미에스코 Mieszko I세가 로마가톨릭 수호 하의 기독교를 수용한 때와 일치한다. 미에스코 I세는 보헤미아 출신 부인의 권유에 따라서 궁정의 인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폴란드의 세례’ The Baptism of Poland라고 일컬어진다.

폴란드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인류에 기여하였다. 천동설을 뒤집고 지동설을 제시하여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코페르니쿠스를 비롯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인 퀴리 부인, 피아노의 시인으로 불린 작곡가 쇼팽, 가톨릭 교도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배출하였다.

폴란드라는 국명도 목가적이다. 들판, 평원, 개방지 등을 의미하는 초기 슬라브어에서 기원한다. 폴란드라는 국명은 서기 9-10세기 현재의 폴란드에 거주한 서부 슬라브 부족인 ‘폴란’ the Polans에서 유래되었는데 ‘폴란’은 들판, 평원, 개방지 등을 의미하는 초기 슬라브어인 ‘폴’ pole에서 비롯되었다. ‘폴란’은 들판의 사람들, 평원의 사람들, 들판의 거주자, 평원의 거주자를 의미한다.¹⁾

폴란드는 1569년 7월 루블린 연합조약 Union of Lublin을 통하여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을 구성하여 중동부 유럽에서 100만 평방 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토대로 중심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낙후된 농민의 나라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인지 폴란드는 동유럽으로 불리는 데에 불만을 보이기도 한다. 서부라는 말이 문명과 동일시되는 오랜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

폴란드는 많은 역사의 부침을 겪은 나라이다. 한 때 중동부 유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지만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의 3국이 폴란드-리투아니아 공화국을 분할해 차지한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제1차 세계대전에 폴란드인 2백만 명이 참전한 대가로 1918년 다시 나타나기까지 폴란드라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이 123년에 달하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시 사라져버렸다.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이어 소련이 9월 17일 폴란드를 침공하였다. 9월 28일 바르샤바가 함락되었다. 나치 독일과 소련은 사전 합의한 대로 폴란드를 서쪽과 동쪽으로 분할하여 점거하였다.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측 승리로 끝나고 난 1945년에야 회복되었다. 전쟁 기간 중 폴란드는 유럽 국가중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제공하였다. 이들은 서부에서는 폴란드 망명정부, 동부에서는 소련의 지휘를 받았다. 6년에 걸친 점령 기간 중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하여 560만 명의 국민이 희생되었다.

폴란드는 불행한 과거를 딛고 많은 나라와 협력을 추진한다. 폴란드 헌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의 헌법은 “우리 조국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었던 때의 씁쓸한 경험을 유의하면서 인류 가족을 위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을 인식한다” Aware of the need for cooperation with all countries for the good of the Human Family, Mindful of the bitter experiences of the times when fundamental freedoms and human rights were violated in our Homeland 라고 말한다.

□ 성장하는 경제와 안정된 정치

폴란드는 유럽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며 북쪽의 경계선은 발트 해안선에 이른다. 북쪽에는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와 리투아니아, 동쪽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남쪽에는 슬로바키아, 서쪽에는 체코와 독일이 접경하여 7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러시아령 칼리닌그라드를 머리에 이고 사는 셈이다.

폴란드의 면적은 312,679 평방 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1.4배 정도이다. 농지가 61%, 삼림이 30%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 인구는 2020년 현재 3,780만 명이다. 유럽연합 27개국 중 면적은 6번째, 인구는 5번째이다.²⁾ 정부 형태는 의회 공화정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폴란드는 GDP가 유럽연합 27개국 중 7번째로서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1990년 1월 1일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최고 성공사례로 꼽힌다. 폴란드 경제는 중유럽 최대의 시장으로서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폴란드의 1인당 GDP는 2004년 유럽연합 평균 25% (6,681/26,308 달러)에서 2021년 47% (18,000/38,411 달러)로 성장하였다.³⁾



폴란드는 1999년 체코, 헝가리와 함께 나토에 가입하였다. 나토는 폴란드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였다. 이어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회원국 확대 계기인 2004년 체코, 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국가,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국가, 사이프러스, 몰타 등 9개국과 함께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 이는 폴란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폴란드 정부는 세금을 간소화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였다.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통합된 단일시장을 활용하며 나토 회원국으로서 확고한 안보에서 나오는 안정감이 도움이 되었다.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통합 기금은 인프라 건설 등 폴란드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폴란드에서는 보수·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법과 정의당’ PiS이 2015년 이래 집권 중인데 2023년 11월의 임기까지 어렵지 않게 정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10월 실시된 총선에서 ‘법과 정의당’ 정부는 폴란드 역사상 최초로 단독 정부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폴란드는 영국에서 항공편으로 2시간 거리로서 EU 회원국으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워 단시간내 수송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EU 자금 등을 활용하여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폴란드는 EU 단일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만큼 리스크가 적은 시장이며 EU 자금의 최대수혜국으로 인프라, 방산, 금융, 자동차 등에서 외국 기업에게 기회를 준다.

폴란드에는 경제협력의 기회가 있다. 우선 폴란드는 중유럽의 심장에 위치하고 있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인구 규모가 상당한데다 교육 수준이 높아 인적 자원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 전망도 긍정적이며 EU의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도 편리하다. 38백만 명 규모 인구로 신규 EU 가입국 중 최대 시장이었다.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 입법을 수용하며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EU와 단일시장을 공유하면서 EU 경제규정을 수용하고 있지만 유로가 아닌 자체통화를 보유하면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2021-27년간 EU의 폴란드 지원

예산은 750억 유로에 달하는데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최대 순수혜국이다.

2021년 폴란드의 수출은 3,393억 달러에 달하여 전년 대비 22.8%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수입은 3,397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28.8% 증가하였다. 폴란드는 해외직접투자 FDI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왔는데 미국이 최대 투자국 중 하나로서 2020년 총 FDI의 9.4%를 차지하였으며 29만 명을 고용하였다.

폴란드의 선도산업은 자동차, 항공, 정보기술, 식품, 운송, 약품, 제지, 기기, 금융, 투자, 에너지, 방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GDP의 2%를 국방비에 투입하며 국방비 중 20%를 장비 및 인프라에 사용하자는 2014년 웨일즈 Wales 나토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폴란드는 ILO의 8대 핵심협약을 포함하여 91개 ILO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국내 노동법도 EU 규정과 합치되게 유지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 관련 투명성 지수도 최근에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폴란드는 지식 재산권 관련 EU의 모든 법규를 이행하는 만큼 안정성이 있다. 테러 위협이나 도난, 거리 범죄도 낮은 편이며 조직범죄 수준도 낮다.⁴⁾

□ EU 내의 폴란드

폴란드는 시장경제 전환, 이후 EU 가입으로 커다란 기회를 맞았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가져왔다. 폴란드는 시장경제 전환과 EU 가입 이전에도 독일과 역사 인식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1972년 독일-폴란드 교과서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적 시각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를 열고자 노력하였다.⁵⁾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것은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Willy Brandt 총리가 바르샤바의 유태인 게토를 방문해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일 것이다. ‘바르샤바에서의 무릎꿇음’ (바르샤바 크니팔 Kniefall von Warschau)으로 알려진 사진은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되었으며 지금도 흔히 검색된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⁶⁾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는 아픈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동부 영토의 많은 부분을 폴란드에 할양하여야 하였다. 이는 평화를 지키기보다는 또 하나의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나치 정권은 폴란드로 할양된 ‘폴란드 회랑’ Polischer Korridor 등 지역내의 독일인 처우문제를 폴란드를 침공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영토 조정이 이루어졌다. 러시아가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차지하는 대신 폴란드는 오데르 Oder 강과 나이세 Neisse 강을 경계로 서부 영토를 독일로부터 할양받았다. 폴란드로서는 새로운 국경을 인정받는 것이 중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었다. 독일은 폴란드와 관계정상화 기반이 된 1970년 바르샤바 조약에서 오데르-나이세 국경을 인정하였다.

독일은 기회가 있는 대로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표명하였다. 이는 폴란드 등의 과거 피침략국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데 자신감을 주었다. 폴란드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독일과 나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 나토와 유럽연합은 독일과 폴란드에 함께 안보를 지키고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민주화를 위한 동력도 되었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집권 ‘법과 정의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이는 EU 회원국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법과 정의당’이 설치한 ‘판사 징계위원회’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서 개정을 요구하였다.

유럽연합은 팬데믹 관련 폴란드에 지원하기로 한 수십억 유로 예산 지불을 유예하면서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을 압박하였고 ‘법과 정의당’은 유럽연합의 요구에 응하였다. ‘법과 정의당’은 ‘판사 징계위원회’를 새로운 책임 패널로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유럽연합이 지불을 동결한 자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의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 폴란드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해 2021-27년간 765억 유로 상당의 통합정책 전략에 합의하였다. 폴란드의 에너지 의존 감

축과 환경보호, 디지털 이행, 포용적이며 탄력성 있는 공동체 구축, 지속가능한 어업, 지방에 대한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합의이었다.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EU 자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한편 현대경제, 녹색경제,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기를 희망한다. 유럽연합은 2007-13년간 EU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673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폴란드에서 일자리 창출, 도시교통 개선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320만 명 이상에 달하였다.

유럽연합은 2014-20년간에는 EU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폴란드에 776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폴란드내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512억 유로, 청년고용 사업에 2억 5249만 유로가 사용되는 등 폴란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지원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 미국과의 탄탄한 관계

폴란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미국의 나토에서의 역할이 압도적이기도 하지만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나토의 유럽 회원국이 유럽 자체의 방위력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때에도 폴란드는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나토를 통한 방위에 역점을 두어 왔다.

폴란드는 미국의 견실한 동맹국으로서 유럽 및 세계의 안보와 번영 증진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나토, 대테러, 비확산, 미사일 방어, 인권, 경제성장 및 혁신, 에너지 안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⁷⁾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투입하는 공약을 이행하고 아프간, 이라크, 코소보, ISIS 관련 작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폴란드는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나토 병력을 수용하고 있어서 미군 약 4,500명이 폴란드에 주둔한다. 미국 내에는 1천만 명에 이르는 폴란드계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폴란드와 미국간 인적 유대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한다. 폴란드는 2000년 미국의 USAID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이제는 성공적인 체제이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국에 대한 지원에 미국과 함께 참여한다.



폴란드는 미국의 군사장비와 무기를 구매하는 등 미국과 방산 협력도 활발하다. 폴란드의 견실한 경제성장, 상당 규모의 국내 시장, EU 회원국 모두를 포괄하는 단일시장, 정치적 안정, 비교적 낮은 임금에 수준 높은 노동력은 미국의 기업을 폴란드로 이끄는 유인이다. 폴란드는 나토뿐 아니라 OSCE, OECD, IMF, WTO, 세계은행 등에서도 미국과 협력한다.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트럼프 Trump 대통령의 공화당과 이념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례 없이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바이든 Biden 행정부가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 유럽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관심권에서 밀려나는 듯이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역할이 부각되면서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3. 폴란드의 약점

□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개선이 필요한 기업환경

폴란드의 약점은 유럽연합이 지적하듯이 자유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에서의 취약성이다. 집권 '법과 정의당'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유지하지만 자유주의 성격이 취약하다. '법과 정의당'은 경제적 개입주의와 사회적 보수주의가 혼재되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주요 산업의 자산을 국유화하고 시장진입에 장벽을 만들기도 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자유 민주주의의 규범을 무시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폴란드의 정치인이 사법부의 판사들을 임명하면서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며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것을 이유로 7,500억 유로의 팬데믹 복구 기금 중 폴란드에 대한 지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폴란드는 장기적으로 도로 및 철도 인프라를 계속 개선하여 나갈 필요가 있으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나갈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경직적인 노동법규를 개정하고 상업재판제도, 정부규제, 조세제도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 폴란드는 상당한 규모의 인구와 노동력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 노동

력이 축소되는 것도 도전이 될 전망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발전을 계속해 오면서 ‘중진국 함정’ middle income trap에 빠지지 않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식경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중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국제 및 정부지출을 통합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4. 폴란드가 부여하는 기회

□ 한국-폴란드간 친밀감

한국과 폴란드는 친밀감을 갖는다. 유사한 역사를 공유하는 인식이 배경에 있다. 양국은 과거 역사에 자부심을 갖는다. 한국은 많은 나라를 흡수한 중국으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였다. 만주까지 지배한 고구려,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협력을 유지한 백제,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 신라가 있다. 폴란드는 1569년 루블린 연합 조약 Union of Lublin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을 이루어 17세기 중반까지 중동부 유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편, 양국은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 한국은 많은 외침을 받고 일제 강점의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폴란드는 1795년 러시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3국의 폴란드 분할에 따라 123년간이나 주권을 상실한 경험과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나치독일과 소련에 의해 영토를 잃은 경험이 있다. 과거 역사는 현재에도 한국과 폴란드의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불편함이 남아 있는 한·일 관계, 불신이 계속되는 폴란드와 러시아 관계 등이다.

한국과 폴란드는 1989년 11월 1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2013년 이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한국 정부는 수교 직후 1989년 11월 27일 폴란드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폴란드 정부도 바로 이어 1990년 1월 16일 한국에 대사관을 개설하였다. 양국 대사관은 동구권의 체제변환이 시작된 초기부터 개설되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국은 굴곡의 역사를 가졌다는 공통의 경험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가치를



공유하며 탄탄한 관계 발전을 이룩해 왔다. 특히 폴란드가 체제변환을 시작하고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며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여 안보와 번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하였다.

폴란드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중립국감독위원회 NNSC: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일원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였다. 폴란드의 중립국감독위원회 참여는 폴란드 군 최초의 평화임무이었다. 폴란드의 대표단은 개성에 주둔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의 감독을 받아 활동하였다.⁸⁾

폴란드의 역할을 냉전의 종식, 유럽 내 공산주의 붕괴, 소련 붕괴에 따라 완전히 변화하였다. 사실 폴란드는 북한과 먼저 수교하여 지금도 남북한에 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폴란드는 1948년 10월 16일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는데 양측간 교역규모는 2008년 9,497만 불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과 폴란드 관계는 북한 문제에 관해서 역사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여왔다. 1948년 9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 한국은 바로 한달 전 8월 15일 수립된 정부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소련 대표 안드레이 비신스키 Andrey Vyshinsky 외교장관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3개월 동안 안건도 상정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였다.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가다 1948년 12월 12일 비신스키 장관이 심한 치통과 성대결절로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때 한국정부 승인 안건이 상정되었다. 유엔총회 투표 결과는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한국정부를 승인하였다. 유엔총회 결의 195호이다. 반대한 6개국 중 한 나라가 폴란드이었다.⁹⁾ 당시 폴란드와 북한의 관계가 긴밀하였다.

1989년 수교 이후 한국과 폴란드간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폴란드는 체제 전환에 따라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었다. 1993년 대우 기업이 전자와 자동차 분야에 투자하면서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본격적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4년 바웬사 대통령이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외교관계가 급진전을 이루었다. 폴란드는 2022년 현재 한국의 유럽 5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이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에 문화원과 세종학당을 운영하면서 문화교류를 통해서도 관계를 증진한다. 2016년 10월 17일 폴란드 LOT 항공사가 직항노선에 취항하면서 양국 간 직항 항공편이 개설되었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2018년 개시되고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되면서 양국간 활발한 문화와 인적 교류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유럽연합을 통한 협력

한국과 폴란드는 유럽연합을 통해서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폴란드는 자신이 참여하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중요성을 어느 나라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한다. 나토가 러시아로부터 안보의 울타리가 되며 유럽연합이 단일시장을 통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을 알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이다.

폴란드 출신의 도널드 투스크 Donald Tusk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특히 그랬다. 그는 한국이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였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하였다. 투스크 의장은 당시 한국이 유럽연합과 3대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인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 상당 기간 유럽연합과 기본협정, FTA와 위기관리기본협정의 3대 협정을 체결한 유일한 나라이었다. 한국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 10개국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10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을 함께 포함하였다.¹⁰⁾

EU와 국교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면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유럽연합은 전략적 동반자의 수를 좀처럼 증가시키지 않는다. 특히 EU 인사들은 전략적 동반자 국가 중에도 한국처럼 진정으로 뜻을 함께 하는 전략적 동반자 국가는 매우 소수임을 강조한다.

금년 (2023년)은 한국과 유럽연합이 국교를 맺은지 60주년이 되기 때문에 더욱 의미를 갖는다. 양측은 1963년 7월 24일 수교하였다. 유럽연합의 모태인 유럽경제공동체를 창설하는 로마조약이 발효되고 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가치를 공유하는 준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 정부 출범 초 유럽연합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2022년 6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특사단은 브뤼셀, 스트라스부르, 파리 등을 방문하여 베스타거 Margrethe Vestager 수석부집행위원장 등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양측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치동맹으로 심화하며 디지털, 의료, 기후변화, 녹색전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정상회담부터 실무협약까지 많은 협의를 갖는다. FTA 이행을 위한 16개 협의회체를 포함해 정기 협의회체가 40개에 가깝다. 입법부간에도 코로나 19 기간을 제외하면 매년 상호방문해 협의를 갖는다. 코로나 19 여행 제한이 해제되자마자 유럽의회 대표단은 한국을 찾았다. 이들 입법부간 협력은 행정부의 협력을 보완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높인다.

유럽연합은 통상정책에 배타적 권한 exclusive competence를 보유하고 있다(EU기능조약 207조). EU 회원국이 아니라 EU 기관이 통상 관련 입법 제정, 협정 체결 등 권한을 보유한다. 공동통상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은 유럽연합을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회원국간 관세연합과 단일시장을 토대로 EU 통합의 원동력이 되어 온 핵심정책이다.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보호 등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EU 차원에서 결정된 정책을 전체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동시에 이행할 뿐이다. EU 설립 초기 단계부터 모든 회원국은 공동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통상정책은 EU 차원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EU가 전권을 행사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EU는 EU 산업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 조치를 결정하여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이행할 수는 있다. 또 EU는 통상정책을 무역 증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목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증진을 위해서도 수행하여 왔다.

□ 한국-폴란드간 교역 및 투자

폴란드는 중유럽에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 중 하나이다. 폴란드는

1989년 공산주의 체제 붕괴에 따른 체제 전환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시작하여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경제, 통상 등 전반적 여건을 더욱 호전시켰다.

한국과 폴란드간 교역은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이어 2022년 (89.5억 달러)까지 연이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다. 한국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투자는 가장 모범적 투자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기업의 투자는 폴란드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전자, 가전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전개해왔다. 27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폴란드에 진출하여 제조업,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 기업의 활동은 에너지, 인프라,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대되어 나갈 전망이다.

한국과 폴란드간 교역은 특히 2016년부터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2017년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 폴란드에 투자하는 한국진출 기업이 증대하면서 현지 공장설립과 생산을 위한 기계류, 부품, 축전지 등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수교 30주년을 맞은 2019년에는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현지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1996년, 1998년, 2006년, 2007년 및 2017년 이후에는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2019년에는 10억 달러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양국간 수교 30주년을 맞은 2019년은 교역액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폴란드에 대한 직접 투자에서도 새로운 획을 그은 해가 되었다.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폴란드에 투자하였으며 우선 전자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폴란드라는 한 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전체 EU 단일시장을 고려한 투자이었다.

한국의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투자가 폴란드에서 실시됨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중간재를 공급하는 부품 및 소재 공급업체들이 동반 진출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한국 기업들의 초기 투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들 투자업체로부터의 생산 및 수출 증대에 따라 무역,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동반하여 실시되었다.

※ 한국의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 (단위: 억불) * 한국무역협회 통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44	41	37	36	38	28	29	31	43	53	56	66	79
수입	3	4	5	8	8	7	5	6	6	8	8	11	11
교역	47	45	42	44	46	35	34	37	49	61	64	77	89
수지	42	37	31	28	31	21	24	25	37	45	48	55	68

※ 한국의 대폴란드 연도별 직접 투자 (단위: 백만불)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신규법인 수	1	1	2	0	4	6	22	5	2	4	5
투자금액	1	0	1	5	38	123	50	269	40	49	14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신규법인 수	2	2	3	18	20	17	13	1	12	8	4
투자금액	38	17	36	78	228	119	94	30	59	90	27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신규법인 수	7	8	10	21	14	29	36	22	28	5	332
투자금액	22	55	39	54	216	535	1,163	739	583	462	5,268

* 주요 투자기업: 현대엔지니어링, LG전선, LG화학, 현대글로비스, POSCO건설, KT, 만도, 삼성전자, 서연전자, LG디스플레이, LG전자

1993년 대우자동차가 한국 기업 중 처음으로 폴란드에 투자하였다. 다음 해에는 한국의 다른 재벌 기업이 폴란드 시장에 진출하였다. 2022년 현재로 한국 기업의 총 투자 누적액은 57억 달러, 설립 법인 수는 342개를 기록하고 있다.¹¹⁾ 폴란드에는 거의 모든 한국의 재벌 기업을 포함, LG에너지솔루션, LG이노텍, LG전자, SK케미칼, SK Eurochem, 만도회사,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진출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폴란드를 EU 단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사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EU 가입 직후의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은 시장 규모와 소득수준이 낮아 자체로는 수출을 확대할 여지가 적었으나 여타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 통로로

유용하였다. 또 중동부 유럽 국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활용할 여지가 있었으며 EU의 통합정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경제성장 가속화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EU와 중동부 유럽은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기존 EU 회원국은 공산품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 기존 EU 회원국은 저렴한 임금과 단일 시장을 활용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기술집약적 제품의 수출시장을 새로이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신규 회원국은 농산물과 노동집약적 상품의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경제발전에 자신감을 갖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 기존 산업만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에서도 협력을 증대하고자 한다. 폴란드는 사이버 보안, 핀테크, 드론, 게임 개발, 의료기기와 장비 분야에서 활발한 발전을 기초로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¹²⁾

□ 새롭게 발전하는 방산 협력

2022년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70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가 2022년 11월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5억 달러 규모 ‘천무’ (230mm급 다연장로켓)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와의 협력을 중시한다. 천무 수출을 유럽지역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며 안보 역량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평가한다. 양국은 기술협력, 공동 연구개발과 공동생산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¹³⁾

폴란드와는 그전 8월 27일 체결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계약, 9월 16일 체결한 FA-50 전투기 이행계약 수주액을 합해 계약규모가 124억 달러 규모에 달하였다. 2022년 9월 16일 민스크 마조비에츠키 Minsk Mazowiecki 시에서 체결된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의 폴란드 군비청에 대한 30억 달러 규모 FA-50 전투기 48대 수출 계약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Andrzej Duda 대통령과 마리우스 브와쉬차 Mariusz Blaszczak 부총리 겸 국방장관도 참석해 폴란드의 관심을 보여주었다.

전투기 생산에 1대당 20-30만 개의 부품이 사용되며 많은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



어지는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면서 전투기 1대 수출은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방부와 방사청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산업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¹⁴⁾

2022년 8월 27일 폴란드 모롱크 Moraq 시 소재 기계화 부대에서 체결된 계약은 현대로템(주)와 한화디펜스(주)가 폴란드 군비청에 57.6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1차 이행계약이었다. 7월 27일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KAI가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첫 번째 후속계약이었다.¹⁵⁾

그전인 7월 27일에는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방부 청사에서 폴란드 국방부가 상기 한국 방산업체 3곳과 구매총괄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다. 총 2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계약이었다. 폴란드가 한국의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을 구매하며 K2 전차 800대, K9 자주포 600문을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계약이었다.

폴란드는 2021년 GDP 대비 2.1%이었던 국방비를 2023년 GDP 대비 3%로 증액하는 국토방위법을 2022년 3월 가결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나토 최전선에서 러시아와 맞서야 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폴란드는 미그-29 전투기, T-72 전차 등 옛 소련제 주력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대거 제공하고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였다. 폴란드는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원조를 제공하며 다른 한편 자국의 무기 체계를 현대식으로 개편하고자 하였다.

2023년 3월 방한한 즈비그니에프 라우 Zbigniew Rau 폴란드 외교장관도 방산 협력 관련 기대를 표명하였다. 라우 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인접국으로서 폴란드는 안보 불안 해소 차원에서 한국 무기 구입을 결정하였다면서 폴란드로의 기술이전과 유사한 무기의 폴란드 국내 생산도 기대하였다. 라우 장관은 ICT,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 안보 협력도 기대하였다.¹⁶⁾

□ 새로이 부상하는 원전 협력 가능성

폴란드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유럽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이행 일환으로 2050년 이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기후

법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그린딜 Green Deal의 핵심이지만 폴란드는 동력의 80%를 석탄으로부터 얻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여 왔다.

폴란드로서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괴로운 일이지만 에너지 체계를 변환하는데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등 가격 상승으로부터도 고통을 받는다. 폴란드가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갖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폴란드는 1970-1980년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당시 원전 건설에 착수하였지만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폴란드 국민의 반대에 봉착하여 계속할 수 없었다. 원전 건설은 40년 가까이 지나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다. 폴란드는 20년내에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력 생산량의 25-40%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 Just Transition Fund에 배정되어 있는 175억 유로에서도 많은 할당을 받기를 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12월 실레시아 등 폴란드의 5개 석탄사용 지역의 기후전환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전환기금’으로부터 38.5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모라비에츠키 Morawiecki 총리는 2022년 10월 28일 트위터 메시지에서 폴란드 원전 사업에 웨스팅하우스 Westinghouse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랜홀름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폴란드가 400억 달러 (약 50.9조원) 규모 원자력 사업 첫 단계로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하였다면서 미국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폴란드는 신규 원전사업으로 6-9 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하고자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기 Electricite de France 등 3개 회사가 경쟁하였다.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근래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보지 못한 것이 약점이다. 또 폴란드 야당은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별도로 폴란드 기업이 추진하는 원전사업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였다.



불과 사흘 후 2022년 10월 31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전력공사, 민간 에너지 기업 제파크 ZEPAK와 원전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협력의향서 LOI와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폴란드 정부가 발주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6기 건설사업과는 별도 사업으로 폴란드 폰트뉴프 Patnow 기존 화력 발전소 부지에 최대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한국이 우위를 점하였다. 성사된다면 한국과 폴란드간에 중요한 협력사안이 추가될 길을 뚫게 된 것이었다.

5.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리스크

□ 폴란드 리스크 평가

이코노미스트의 EIU는 2022년 7월 폴란드의 국가 리스크를 BB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상품가격이 급증하여 경상수지 적자도 증대되었다. 통화와 금융부문의 리스크는 각각 BBB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구조 리스크도 BBB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불확실성이 있다.¹⁷⁾

특히 정치 리스크가 BBB로 평가되는 데에서 보듯이 ‘법과 정의당’ 정부가 폴란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유럽연합과 폴란드 집권 ‘법과 정의당’은 법의 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폴란드 정부도 EU 자금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유럽연합과의 합의는 계속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의 최대 리스크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 재정,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된 바 있다. 상당 기간 폴란드는 견실한 국내 수요에 기초하여 활발한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요한 다운리스크이다.

□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크림아를 병합한 후 유럽연합과 제재를 주고 받았지만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달랐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범죄자로 낙인이 찍혔고 히틀러와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가 승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우크라이나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의 국경을 제시하면서 돈바스는 물론이며 크림아 수복까지 거론하고 있어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길을 밝고 있다. 러시아의 전쟁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친러 성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목표하였던 나토의 동진을 저지하는 것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폴란드는 유럽연합과 나토에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가장 우려하던 국가이었다. 폴란드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달리 평가되고 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선봉에 서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면 유럽연합과 나토에서의 입지는 더 탄탄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인접국 폴란드에 대한 영향은 크다. 우크라이나로부터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었으며 전쟁의 여파로 인한 높은 물가는 폴란드의 소비와 투자를 침식하였다. 폴란드는 나토와 EU 회원국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선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여파를 차단하고자 탈러시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러시아가 폴란드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여(2022.4.27.) 폴란드는 에너지 수입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 폴란드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GDP의 1.3% 수준이었는데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하여 폴란드의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폴란드의 인플레이션은 유럽연합에서 체코



에 이어 2위 수준이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많은 무기를 제공하였다. 폴란드는 한 때 우크라이나 난민 중 절반 가까운 400만 명을 수용하였다. 폴란드가 2022년 중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쓰는 예산만 53억 달러 (약 7조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EU 회원국간 이견이 빚어지기도 하였다.¹⁸⁾ 폴란드는 발트해 국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함께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에 앞장섰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만큼 러시아에 대한 안보 우려가 컸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당초에는 러시아와의 타협에 무게를 두었다.

폴란드 국내정치를 둘러싼 EU와 폴란드의 불편한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변화되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에 대해 팬데믹 복구기금 지급을 보류하여 왔으나 2022년 6월 팬데믹 복구기금 350억 유로를 방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란드가 EU 내에서 불편한 위치를 갖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스타로 부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지원을 공급하는 허브이자 우크라이나 난민의 피난처가 되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간 600km나 되는 국경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많은 지원이 폴란드를 통하여 이루어진 만큼 폴란드가 나토의 창끝이라는 말이 러시아에는 가볍게 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폴란드는 2023년 국방예산을 두 배로 증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갖고 미국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도 유럽연합 자체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폴란드는 발트해 국가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나토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 폴란드의 중국과의 관계

폴란드는 2019년초 중국 스파이를 체포하는 등 중국에 대해 거리를 유지하였다. 다만 안드레이 두다 Andrzej Duda 대통령이 2021년 2월 중국과 유럽국가간 17+1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관계 진전 움직임도 보였다. 폴란드 대통령이 화상회의이기는 하지만 17+1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여타국 참석이 저조하였던 것과 대조적이었다. 2021년 3월 두다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회담, 2021년 5월 즈비그니에프 라우 Zbigniew Rau 외교장관의 방중 등이 이어졌다.

폴란드와 중국간 관계 개선은 양국간 서로 다른 관심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다. 폴란드는 서방 파트너에 대한 실망과 불신에서, 중국은 악화되는 유럽과의 관계에서 재균형을 이루어보려는 큰 전략에서 접근하였다. 결국 폴란드의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전략적인 정책 재조정이라기보다 미국과 독일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보다 전술적인 조치이었던 것이다.

□ 경제안보 리스크 시사점

한국 기업들이 폴란드에 진출하는 것은 폴란드를 EU 단일시장에 대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양국의 이해가 서로 합치한다. 폴란드 내의 여건이 양호하여 한국 기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가며 유럽연합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폴란드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적이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인 만큼 한국과 폴란드는 일방이 상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기보다 서로 도와야 할 처지에 있다. 폴란드가 만에 하나 한국의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자 하더라도 자체로는 경제 규모나 인구가 한국에 비해 작은 만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거대 경제체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유럽연합은 통상정책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한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럽연합은 법치주의 가치를 중시하며 장기적인 시각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 경제안보와 관련 유럽연합은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폴란드는 유럽연합에서 국내 정치의 자유민주주의 미흡에 관해 비난을 받는 등 유럽연합과 어려운 관계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설사 폴란드가 희망하더라도 자의적인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은 폴란드와의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되 유럽연합을 통한 협력 틀을 강화해 이종의 협력망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폴란드와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안보 문제에 관하여 함께 협력할 소지가 많다. 폴란드와 방산협력, 원자력 건설 협력 등은 양국이 경제안보 문제에 관해 입장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폴란드가 참여하는 유럽 연합이나 나토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나토를 통해 추진되는 경제안보 관련 협력에 양국이 함께 할 수 있다.

※ 한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입(단위: 억유로) * 한국무역협회 통계(2022년은 1-2월)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390	437	451	457	464	486	486	523	547	561	481	561	99
수입	400	446	455	444	453	471	474	513	543	555	454	547	103
교역	790	883	906	901	917	957	960	1036	1080	1116	935	1108	202
수지	-10	-10	-3	14	11	15	11	9	48	5	26	14	-3

○ EU 대한투자: 1,047억불(18년까지 누계) / 한국의 대EU투자: 742억불(18.9월까지 누계)

6. 폴란드 경제안보 관련 주요인사

□ Jaroslaw Kaczynski 폴란드 ‘법과 정의당(PiS)’ 대표

- 1949.6.18.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출생
- 쌍둥이 동생 레흐 (Lech)와 함께 2001년 ‘법과 정의당’ 창당: 동생은 2001-10년간 대통령 재임
- 총리 역임(2006.7월-07.11월) / 2007년 총선 패배후 ‘시민 플랫폼’ 정부 기간 야당 대표

- 2015년 법과 정의당이 대통령과 의회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이후 가장 중요한 인사로 평가

□ 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

- 1968.6.20. 폴란드 Silesia의 Wroclaw에서 출생
- Wroclaw 대학 졸업(역사학 전공)/Hamburg 대학 및 Basel 대학 수학
- ‘법과 정의당’ 당원/부총리(2015-17), 개발장관(2015-18), 재무장관(2016-18) 역임

□ 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 1972.5.16. 폴란드 Krakow에서 출생
- Jagiellonian 대학 법학 석사, 법학 박사
- 폴란드 하원의원(2011-14), 유럽의회 의원(2014-15) 역임

□ Mariusz Blaszczak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 1969.9.19. 폴란드 Legionowo에서 출생
- Warsaw 대학 역사학 학사, 국립행정대학 수학
- 폴란드 내무장관(2015-18) 역임

□ 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1975.12.21. 벨기에 불어권 Wallonia의 Namur에서 출생(부친은 EU 집행위원을 역임)
- 브뤼셀 자유대학(ULB) 법학 전공, 암스테르담 대학
- 벨기에 개발협력장관(2007-11), 총리(2014-19) 역임
- 모국어인 프랑스어 외에도 네덜란드어, 영어 능통

□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

- 1958.10.8.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한 독일인(부친은 경쟁총국장 등으로 EU에서 근무)
- 13년간의 교육을 브뤼셀의 유럽학교에서 수학/LSE 경제학 전공/Hannover 의대 졸업
- 독일 노동장관(2009-13), 국방장관(2013-19) 등 역임



- 7자녀 출산(남편은 내과의사)
- 모국어인 독일어와 프랑스어 외에도 영어 능통
- Valdis Dombrovskis EU 부집행위원장 겸 통상담당 집행위원
 - 1971.8.5. 라트비아의 수도 Riga에서 출생(폴란드 계)
 - Riga 공과대학 경제학 전공, Latvia 대학 물리학 석사, Maryland 대학 전기공학 박사과정
 - 라트비아 재무장관(2002-04), 총리(2009-14), EU 집행위원(2016-20) 등 역임

[참고 자료]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K2전차.K9자주포, 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 체계의 세계적인 경쟁력 입증”, 2022.8.27.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FA-50, 對폴란드 수출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체계의 유럽 진출 확대”, 2022.9.16.
-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불 규모 달성”, 2022.11.4.
- 김용덕, “이야기 폴란드사”, HUEBOOKS 2013
- 김진호,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위원회의 공동운영과 그 의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2021
- 박만원, “동유럽의 한국, 폴란드” 매일경제 2022.7.29.
- 박수찬.김선영, “7조6000억 ‘K-무기’ 폴란드에 수출 계약”, 세계일보, 2022.8.29.
- 브라이언 포터-슈치 지음, 안상준 옮김, “폴란드 근현대사” 오래된 생각 2017
- 아틀레타 브로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관 참사관 겸 정무경제수석, “폴란드 첨단기술, 한국과 시너지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2023.1.3.
- 윤성민, “反轉의 한.폴란드 관계” 한국경제, 2022.8.1.
- 이용일,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 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 역사비평 2015년 여름호 (통권 111호) 2015.05, PP10-39
- 이제홍, 이건희, “한국기업의 EU 진출을 위한 주요국의 비즈니스환경 비교연구”, 「유라시아연구」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08.6월
- 이훈성, “폴란드는 왜 K무기 샀을까” 한국일보, 2022.7.29.

- 임정환, “‘나토의 창끝’ 폴란드 무기 들고 원전 건설 박차”, 문화일보, 2022.12.29.
- 주폴란드 대사관 홈페이지 (2023.2.27. 열람)
- 주한 폴란드 대사관 홈페이지 (업데이트 일자 2022년 7월) (2022.8.1. 열람)
- 황성우, “러시아의 폴란드 지배정책: 성격과 함의 (1795-1918)”,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Vol. 45 No. 2, 25th May, 2021
- Alicja Bachulska, “What's Behind Poland's Sudden Change of Heart About China?”, Chinaobservers, Jul 21, 2021
- Charlemagne, “Poland is being given an opportunity to matter in Europe”, The Economist, 2022.6.30.
- EIU Country Report: Poland (22.7.26. 열람)
- Grzegorz Jasinski, Ph.D., Military Bureau for Historical Research In Military Center for Civic Education, “Poland i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Genesis, international conditions, organizational aspects”,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Role of NNSC in shaping the security architecture at the Korean Peninsula after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September 30, 2013
- “Facts and figures on life in the European Union”,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2023.3.13. 열람)
- “Guidance Overseas Business Risk - Poland”, GOV.UK (Updated 18 February 2021)
- Pawel Surowiec, Ilan Manor, “Public Diplomacy and the Politics of Uncertainty”, Palgrave MacMillan
- Shivshankar Menon, “Nobody Wants the Current World Order” Foreign Affairs, 2022.8.3.
- “U.S. Relations With Poland,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State Department, January 20, 2021
- Nathalie Tocci, “Can Russia Divide Europe”, Foreign Affairs, 2022.8.5.
- “2022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Poland”, U.S. Department of State (2023.2.14. 열람)



□ WorldAtlas,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Poland"

- 1) "What Is The Meaning Of The Name Poland" WorldAtlas
- 2) "Facts and figures on life in the European Union",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2023.3.13. 열람)
- 3) The World Bank Data: GDP per capita (current US\$) - European Union, GDP per capita (current US\$) - Poland
- 4) "Poland - Country Commercial Guide" 미국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홈페이지 (2022.8.17. 열람)
- 5) 김진호, "독일과 폴란드 교과서 위원회의 공동운영과 그 의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2021
- 6) 이용일, "독일-폴란드 관계정상화를 위한 '감정의 정치' - 바르샤바 조약과 브란트의 크니팔", 역사비평 2015년 여름호 (통권 111호) 2015.05, PP10-39
- 7) U.S. Relations With Poland, Bilateral Relations Fact Sheet, Bureau of European and Eurasian Affairs, State Department, January 20, 2021
- 8) Grzegorz Jasinski, Ph.D., Military Bureau for Historical Research In Military Center for Civic Education, "Poland in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in Korea, Genesis, international conditions, organizational aspects", Embassy of the Republic of Poland in Seoul, "Role of NNSC in shaping the security architecture at the Korean Peninsula after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September 30, 2013
- 9) 윤성민, "反轉의 한-폴란드 관계" 한국경제, 2022.8.1.
- 10)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2020년 지역연합 대 지역연합으로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자는 아직 10개국으로 국한된다.
- 11) "한국과의 관계",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2023.2.27. 열람) 한국수출입은행의 통계와는 다소 차이
- 12) 아틀레타 브로조프스카 주한 폴란드 대사관 참사관 겸 정무경제수석, "폴란드 첨단기술, 한국과 시너지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2023.1.3.
- 13)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 170억 불 규모 달성", 2022.11.4.
- 14)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FA-50, 對폴란드 수출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체계의 유럽 진출 확대", 2022.9.16.
- 15) 국방부, 방위사업청 보도자료, "K2전차.K9자주포, 對폴란드 1차 이행계약 체결 - 우리 국산무기 체계의 세계적인 경쟁력 입증", 2022.8.27.
- 16) 한상용, "폴란드 외교장관 "한국 군사장비 구매는 물론 기술 이전도 기대"" 2023.3.16. 연합뉴스 TV
- 17) EIU Country Report: Poland (22.7.26. 열람)
- 18) Nathalie Tocci, "Can Russia Divide Europe", Foreign Affairs, 2022.8.5.